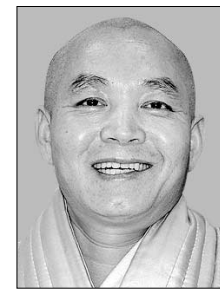


# 불교도시 구례에 사암련 창립

## 종파 초월해 화엄사 등 38개 사암 참여 지역문화 활성화·사회 참여 전개키로

## “잃어버린 불교 위상 찾겠다”

□ interview 구례사암련 초대회장 종삼 스님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불교도시 구례에 사암연합회가 창립됐다.

1월 24일, 화엄사 광학장에 30여명의 스님들이 모여 '구례불교사암연합회(이하 구례사암련)'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 자리는 구례사암련 창립은 물론 종파를 초월해 지역 사암스님들이 모여 불교 활성화 및 제등행진'을 펼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총회에서 정관 및 회칙 확정과 사암련 준비위가 선출된 회장단을 추인했다. 또한 구례사암련 첫 행사로 4.8연합행사와 구례군민과 함께하는 '봉축예술제 및 제등행진'을 펼치기로 했다.

총회를 마치고 연극사 주지 종지 스님은 "그동안 구례 불교는 개별 사암의 실행에

머물렀다"며 "불교계도 지역문화와 사회 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해 불교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례 사암련은 화엄종찰 화엄사를 비롯한 지역내 38개 사암 주지 스님이 참여하고 있으며, '불교 활성화와 사회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보존 등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초대 회장 및 임원단은 회장 종삼 스님(화엄사 주지), 상임부회장 상훈(불락사), 부회장 묘희(백련사), 해명(봉성사), 진오(약천사), 총무 종지(연곡사), 사회 해관(도계암), 심의 연광(수미정사), 재무 덕해 스님(화엄사 교무)으로 구성되었다.

"구례는 경주에 이어 사찰과 불교 문화재가 많은 제2의 불교도시입니다. 근래 들어 이 지역의 불교가 외형에 치우쳤다면 이제 사암련을 중심으로 불교 내실을 다지고 지역사회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출범한 구례불교사암련 합회 초대회장 종삼 스님(화엄사 주지)은 "그동안 구례불교는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미미했다"며 "사암련을 중심으로 지역사

회와 함께하는 불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한사람의 문제의식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첫 발걸음인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화합을 바탕으로 함께 논의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화엄사 주지를 맡아 '향후 천년의 화엄사 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불교와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종삼 스님은 "이제는 도량불사보다 템플스테이, 봉사단 발족, 사찰개방 등으로 내실을 기해 미래를 선도하는 사찰이 되도록 도량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이준엽 기자



송광사·대원사·선암사가 잇따라 성보문화재도록을 발간했다(사진 오른쪽부터).

## ‘성보유물’ 도록 3권 나왔다

예향 전라남도의 사찰에서 잇따라 성보문화재 도록이 발간됐다.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관장 고경), 선암사 성보박물관(관장 승법)과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성)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중인 유물을 모아 <불서도록> <선암사 불화> <조선불화 10대지옥>을 각각 출간했다.

송광사 <불서도록>은 송광사에 소장중인 불교도서 가운데 경전류, 율전류, 논서류 등 3개분야를 모은 것으로

는 "태고총림 선암사가 지난 2001년 숙원불사인 성보박물관을 개관한 이래 처음으로 불화를 정리해 일반에 공개하게 됐다"며 "불교회화 연구자는 물론 불자들의 실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원사가 지난해 개회한 시왕탱 특별전 도록으로 발간한 <조선불화 10대지옥>은 조선 영조 42년(1766) 비구니 묘성 스님이 주연의 여러 스님들과 함께 시주자가 되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조성한 지장탱과 10분의

## 송광사 선암사 대원사

## 박물관 수장고 유물 모아

## 불서·불화 도록 잇따라 출간

경전류 101권, 율전류 3권, 논서류 2권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 불서는 화보와 함께 한글 한문 불서명칭, 간년, 판식, 반곽, 우 무재, 예미, 간기를 기재하고 있다.

태고총림 선암사 성보박물관이 발간한 <선암사 불화>는 수장고에 있는 2300여점의 성보문화재 가운데 불화와 조사 진영을 담고 있다.

이 도록에는 괘불을 비롯한 불·보살, 나한, 선종탱과 조사 진영 111점, 복장물, 도량장엄본이 함께 소개되고 있다.

각 불화마다 도판번호, 작품·작가명, 시대 또는 제작년도, 재질, 작품크기가 표시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각 작품의 해설을 담고 있다.

선암사 성보박물관 장모창 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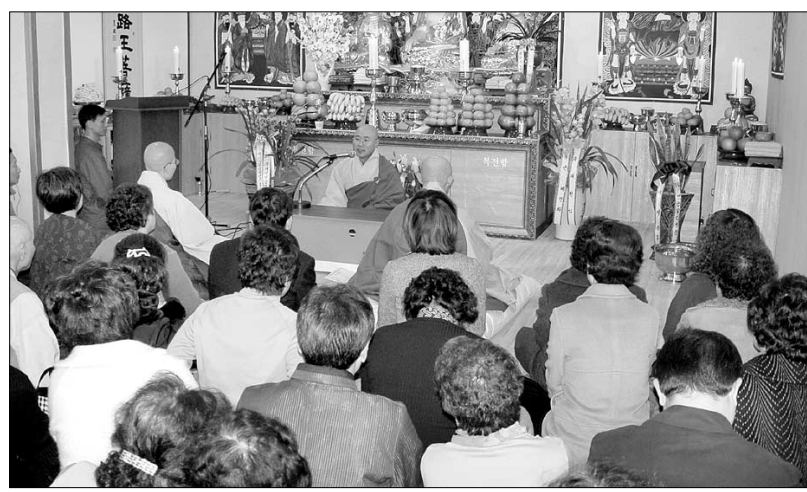
시왕도를 담고 있다.

특히 대원사 시왕탱은 사세가 기울어 광주 덕림사에 모셨다가 2003년 대원사로 돌아와 이듬해 유형문화재 266호로 지정되었다.

이 책 부록에는 불모 석정스님과 불화가 이경희씨의 시왕탱 해설, 김범수 교수(원광대)의 논문 '조선불화 재료와 기법'을 담았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수장고에 한낱 고서나 불화로만 보관되어 있던 성보가 밝은 세상 속으로 귀중한 보물이 되어 나왔다"며 "송광사 선암사 대원사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위치에서 불교문화를 선도한 대찰로 같은 시기에 성보문화재 도록이 발간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광주 시내에 명상도량 자비선원이 문을 열었다.

## 도심속 명상도량 자비선원 개원

### 2월7일부터 '자비수관' 정진

광주 시내에 명상도량이 문을 열었다.

옛 전남도청 옆 장동 사거리에 위치한 자비선원(주지 부만)이 1월 21일 개원 법회를 갖고 명상 수련을 통한 본격적인 도심 포교에 나섰다.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개원법회는 동화사 강주 지은 스님의 초정법회로 진행됐다.

지은 스님은 법회에서 "명상은 경제"라며 "마음이 편하지만 통찰력과 창의력이 생겨 삶과 죽음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비선원은 2월 7일부터 10주간 매주 화

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자비수관 특별정진'을 한다. (062-228-7701)

## 몽골 대학생불자연합 지원 결의 송광사 교구총회 신년계획 수립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는 지난 1월 20일 사자투에서 신년도 첫 교구총회를 개최했다. 교구 본, 말사 스님들은 이날 총회에서 신년인사와 새해 예산, 분담금, 몽골불교 후원 등을 논의했다.

특히 몽골불교 후원사업을 펴고있는 송광사는 이날 몽골 대학생 불자연합회를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후원사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준엽 기자

## ‘부처님마을’ 어디로 가야 하나

### 임대해 쓰던 폐교 공개매각 이전부지 마련못해 발 동동

장재우 요양시설인 부처님마을(원장 선오)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야 할 상황이지만 부지 마련이 여의치 않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999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면 덕성리 덕성폐교를 임대해 입주한 부처님 마을은 천안시 교육청이 폐교를 공개 매각함에 따라 오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부처님 마을은 폐교 인수를 위한 공개 입찰에 참여하려 했으나 자금 규모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 했으며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한 각종 공연 등을 개회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안시 교육청에 새로운 터전 마련에 대한 협조를 의뢰 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부처님 마을 신도회는 1월 21일부터 부지마련을 위한 바자회(사진)를 개최하는 한편 천안시 교육청에부지 마련에 대한 협조와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 육천사암련, 새 회장 현관 스님

충북 육천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24일 정기총회를 갖고 현관 스님(용암사 주지)을 제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상임부회장에 우담 스님(혜안사 주지), 내부부회장에 명안 스님(대야사 주지), 감사에 묘희 스님(덕수암)을 각각 선출했다.

연합회는 이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경로잔치 및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신도단체 구성 △산사 음악회 개최 등을 결의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 직지찾기 축제 등 사업 확정 청주 청원불교연합회

청주 청원불교연합회(회장 각의)는 1월 24일 총회를 갖고 올 사업을 확정했다.

연합회는 오는 4월 교도소 방문 법회를 시작으로 봉축행사(5월)와 직지찾기 유등문화축제(9월), 연합합창제 개최(10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또 2월 7일 오후 2시 충북북교문화관에서 신년교례회 및 법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 제21기 「전생요법·빙의치유」 특별강좌



상담학 박사 임재형

- 강강안내 2월 17일 금요일 10:00~18:00까지
- 출석교육과정 매주 금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일 발송(2시간용 총20개)
-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일 제공
- ▶교육 참가비 : 200만원
-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b>빙의치유법</b>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b>전생요법</b>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b>사주명리학</b>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균점쟁이로.....
<b>최면학</b>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면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중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화 등

▶1만원을 송금하시면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 실천학회 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 회장  
한국지유목회대학원 겸임교수  
KBS 무한지대극,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의대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기법체 등에서 강의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